

지역 이야기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기'

완주군, 마산공장 하이트맥주 몰량 일부 전주로 이전... 고용창출 등 기대

완주 문화원 긴급 이사회 소집 전문공무원 파견 요청

완주 문화원(원장 이행구)은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최근 불거진 보조금 유용 문제 수습 대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문화원은 지난 2월 직원들의 보조금 횡령이 적발돼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7일 개최된 문화원 회원 간담회에서 원장 및 전직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 후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는 문화원장 이하 직원 2명의 직무정지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회계 처리 등 수습을 위해 완주군에 공무원 파견 요청이 결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천자연적 장례문화 설명회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성덕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정착하고자 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것으로 지역 주민, 이·통장연합회 등 노인인구와 중장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이종훈 박사)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연장 교육영상 시청, 건전하고 품위 있는 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불법묘지 설치 예방 안내, 자연장지 조성사례를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는 '장수행복노트'를 제공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끝부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자연친화적 장례방법으로 생활공간 가까이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성덕면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진 장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운주파출소(소장 박덕관)는 지난 11일 운주면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내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실태와 예방 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불철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예방과 농산물 절도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산조선소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잇단 악재 속에서도 완주군에서는 공장 증설·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매각설이 나돌던 하이트맥주 전주공장은 추가 투자를 통해 설비를 증설하고, 신규 인력채용까지 나간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이트맥주는 160억원을 투자해 마산공장의 맥주 몰량일부를 전주공장 앞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생산량 증가와 신규 고용창출 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개 기업이 완주테크노밸리에 이전을 결정하고, 이달 말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기용 탄소소재 기업인 ㈜다인스, 회전청소기 '휴랩'을 개발한 글로벌 청년기업 ㈜다엔티, 화재대피시설 개발기업 ㈜SMENG, 아이에코블록을 생산하는 ㈜인에코가 완주군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들 기업들의 투자금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또한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기업 ㈜시트르토닉스와



군산조선소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잇단 악재 속에서도 완주군에서는 공장 증설·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트랙터부품 전문기업 ㈜울천공업이 사업장 확대를 위해 총 9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총 6개 기업이 이전과 투자협약을 결정하면서 완주군에는 총 260억원이 투자되며, 155명의 신규고용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내의 사정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완주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업들과의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서 에코르 3단지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가 꽃을 피우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서면 에코르 3단지 수상한 공동체(대표 박창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8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신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봉동 주공아파트 블루버드 축구단이 전국대회 우승컵을 거머쥔데 이어 두 번째다.

이 공모사업은 성장기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생활문화를 매개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수상한 공동체의 사업은 '아파트와 마을을 잇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로 도시와 농촌마을 주민들이 서로 알아가며 지역 현안에



완주군의 아파트 르네상스 공동체가 꽃을 피우고 있다.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상상론서트, 주민화합 프로그램(민요, 사물놀이, EM),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하나되는 주민축제가 주 내용을 이룬다.

사업대상은 아파트(에코르2·3차, 남양사이버)와 인근 마을인 이서면 원용사이며, 사업비는 2,500

만원 이내 국비지원으로 이뤄진다. 또한 매해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다.

수상한 공동체는 지난 2016년부터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기구를 결성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 이종복 기자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도시설 점검 봉사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승환)와 복지공동체(대장 김윤중) 위원 10여명은 12일 석담 및 하동리 기초수급자 가구를 방문하여 변기교체 및 수도시설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석담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최모씨(88세)에게 샤워기 고장으로 물이 새 샤워기 교체 및 수도(온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모마을 강모씨(19세)에게는 변기파손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변기를 교체하고, 성크대 수도꼭지 교체 및 수도 점검을 실시해 불편함을 해소해드렸다.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공동체는 2016년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열정을 가진 11명의 위원들이 모여 조직하였으며, 매월 선정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짜장면Day와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전기·수도·보일러 고장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복지 119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승환 민간위원장은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웃의 필요에 맞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살기 좋은 백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정관주 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그룹홈 지원팀, 네일아트 서비스 제공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그룹홈 지원팀에서는 12일부터 4월까지 80개소 그룹-홈(경로당) 입소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순회 방문을 통하여 손 마사지 및 네일아트(매니큐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홈 지원팀에서는 반짝반짝 예쁜 손을 모토로, 겨우내 움츠렸던 심신과 기분을 전환시키며, 노년생활의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손 마사지 및 네일아트(매니큐어 바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향상을 높이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네일아트(매니큐어)는 다양한 색을 접합함으로써 기분전환이 가능하며, 바르는 색깔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분을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정서를 교류함으로써, 요즘 심각하게 증가하는 노인 우울예방 효과 및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몸과 마음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신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봄철 찾아오기 쉬운 질환에 대한 환절기 건강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정형화된 서비스보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에 힘쓰며, 지역주민 어르신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단점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3월부터 만경읍 대죽마을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수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각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마을 공터 등을 찾아가 진행한다.

수리 대상 기종은 관리기, 예취기, 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에 대한 정비 점검과 수리 등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

육도 병행하게 된다.

수리교육에는 순회수리 차량과 수리기사 등 3명의 수리반을 구성해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사용전·후 점검, 보관 관리 요령, 농기계 안전 운행 교육, 농기계의 기본적인 정비·점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담당영농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찾아가는 밀착 행정으로 농업인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일정이 미리 해당 마을에 통보되므로 농업인들이 순회수리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